영어의 진행과 습관

박 노 민
(강릉대학교)

Park, Nomin. 2001. **The Progressiveness and Habits in English.**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1, 39-57. In English we find two aspectual menaings, progressiveness and habits, which do not seem to fit in any of the classical four situation types of state, activity, accomplishment and achievement, established by Vendler in 1967. This paper analyzes the aspectual features of progressiveness and habits to find out their similarities to and differences from Vendler's four types. It turns out that the progressiveness has the same features as those of activity, and that the habits has independent combination of aspectual features distinguished from any of the four types.

1. 서론

Vendler(1967)는 언어로 표현하는 현실 세계의 상황을 정태(state), 활동(activity), 달성(accomplishment), 도달(achievement)로 분류하였고 그의 이러한 4가지 상황 유형(situation types)은 관계되는 글에서 자주 인용되는 고전이 되었다.

실제로 Vendler의 상황 유형은 대부분의 경우 언어 세계의 상적 상황(aspectual situations)을 분류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나 간혹 그의 분류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상황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본 논문의 주제인 습관(habits)과 진행(progressiveness)[1] 은 Vendler의 상황 분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1) a. John is knocking on the door.
    b. Mary gets up early in the morning.

(1a)는 진행을 (1b)는 습관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들에 관한 상적 자

[1]여기서 '진행'은 진행형이 나타내는 상적 의미를 말한다.

질(aspectual features)을 밝히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2장에서 Vendler의 4유형에 대한 특징과 또한 비교되는 다른 학자들의 분류를 검토하고 3장에서 진행, 4장에서 습관의 상적 의미를 분석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상황 범주를 찾아본다. 5장은 결론이다.

2. Vendler의 상황 분류

이미 기술한 Vendler(1967)의 4가지 상황 유형인 정태, 활동, 달성, 도달은 각각 통사적 혹은 의미적으로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음 (2)에서 각 상황을 나타내는 예를 들고 (3)에서는 각각의 의미 자질(semantic features)을 정리하였다:

(2) 정태: be tall, resemble, love, live, know, contain
활동: run, write, watch, snow, seek, eat
달성: grow up, cover, walk a mile, bake a cake, destroy
도달: leave, recognize, win the race, ignite, break, acquire

(3) 정태: +stative, +durative, -telic, -voluntary, +homogeneous
활동: -stative, +durative, -telic, ±voluntary, +homogeneous
달성: -stative, +durative, +telic, ±voluntary, -homogeneous
도달: -stative, -durative, ±voluntary, -homogeneous

(3)에서 보듯이 Vendler의 4가지 상황 유형은 각각 상이한 의미 자질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Vendler의 상황 유형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미 자질인 ±stative, ±durative, ±telic, ±voluntary의 성격과 특징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2.1 ±stative

상황의 의미 자질인 +stative와 -stative 대신에 각각 널리 알려진 용어인 정태(stativity)와 동태(dynamicity)를 대신 사용하기로 한다. 정태와 동태는 서로 상대적 개념인 의미 자질이다. 정태의 특징은 지속성(duration), 동질성(homogeneity), 무 변화(no change), 무 한

계(no limits), 비동작주성(non-agency)으로 압축할 수 있다. 반면에 동태의 공통적 특징은 계속적 변화이다.

정태동사(stative verbs)는 원칙적으로 단순형이지만 동태동사(dynamic verbs)는 자유롭게 진행형을 취할 수가 있다:

(4) a. He knows the truth.
b. He is working in the garden.

동태동사는 유사분열문(pseudo-cleft sentence)에서 do의 대형(proform)이 가능하고 주어의 의지와 동작주성을 나타낼 수 있다:

(5) What he did yesterday was play tennis all day.

동태동사는 또한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동사, 이동을 나타내는 부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6) a. He spent his vacation reading a novel.
b. He walked slowly along the street.

동태동사가 현재 시간일 때 대개 습관적 의미를 나타내고 조동사 다음에 동태동사가 오면 화자의 의견, 의무 혹은 허가를 나타내지만 정태동사가 오면 화자의 의견만을 나타낸다.

(7) a. He walks to his office every day.
b. She must present the article at the seminar.
c. They must be exhausted by now.

2.2 ±durative

상황의 의미 자질 +durative와 -durative 대신에 각각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용어인 지속(durativity)과 순간(punctuality)을 사용하기로 한다. 지속동사(durative verbs)는 일정한 시간의 계속을 나타내지만 순간동사(punctual verbs)는 계속되는 시간이 없다. 지속동사의 시간을 일정한 길이의 선이라면 순간동사의 시간은 하나의

점에 비유할 수 있다.

영어에서 지속동사와 순간동사는 진행형에서 사용할 때 각각 다른 종류의 의미를 나타낸다. 순간동사가 진행형이 될 때 반복을 나타내지만 지속동사는 진행형이 되면 계속을 나타낸다:

(8) a. John is breaking bottles.
b. Mary is working on the computer.

2.3 ±telic

상황의 의미 자질 +telic과 -telic은 각각 유종성(telicity)과 무종성(atelicity)이란 용어로 대신하기로 한다. 정태는 본질적으로 무종성이고 동태 중에서 지속은 내재적인 종점(endpoint)이 있고 없음에 따라 각각 유종성과 무종성을 가진다. 순간은 종점이 있고 없음을 가릴 수 없기 때문에 유종성 혹은 무종성과 관련이 없다.

Garey(1957:105)는 'if one was verbing but was interrupted while verbing, has one verbed?'에 대해 'yes'이면 무종성, 'no'이면 유종성을 나타낸다고 기술한 바 있다. 이것을 다음 (9)에 적용해 본다:

(9) a. He drew a picture.
b. He ran to the station.
a'. He was drawing a picture.
b'. He was running to the station.

Garey의 기준에 따르면 (9a)는 (9a')에서 종점이 내재되어 있는 유종성의 상황이고 (9b)는 (9b')에서 무종성의 상황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9b')에서 내재된 종점이 아닌 단순한 진행 방향은 유종성과 무관함을 알 수 있다.

유종성과 무종성은 상황의 부분과 전체와의 관련에 있어 상이한 양상을 나타낸다. 유종성의 상황에서는 부분과 부분이 모여 종점에 이르렀을 때 전체를 형성하고 이때 부분과 전체는 상이한 구조를 가진다. 또한 종점을 향해 진행하며 형성하는 각 부분 역시 상이한 이질적 구조를 가진다. 그러나 무종성의 상황에서는 종점이 존재하

지 않고 다만 진행 과정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동질적인 각 부분만 존재할 뿐 전체의 구조를 생각할 수 없다.[2] 이러한 유종성과 무종성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볼 수 있다:

(10) a. 유종성: $(((S_1 + S_2) + S_3) + S_4 \cdots\cdots S_g)$
b. 무종성: $S_1\ S_2\ S_3\ S_4 \cdots\cdots$

(10a)에서 (S_1+S_2)와 S_3는 다르고 이들을 합한 것은 S_4와 다르고 이러한 부분들이 합쳐서 종점에서 전체를 형성하는 S_g가된다. (10b)에서 각 부분 S_1, S_2, S_3 S_4등은 동질적 구조를 가지고 종점이 없으므로 전체를 생각할 수 없다.

유종성의 동사구는 완성과 관련된 표현과 병용할 수 있다:

(11) They finished building the house in three months.

또한 유종성의 문장은 almost와 함께 사용하면 중의성(ambiguity)을 가진다:

(12) They almost built a house.

(12)에서 집을 짓기 시작했다는 것인지 거의 다 지었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무종성의 동사구는 종말의 표현 혹은 단순 계속의 표현과 병용할 수 있다:

(13) a. He stopped walking.
b. She ran for some 30 minutes.

2.4 ±homogeneous

상황의 의미 자질 +homogeneous와 -homogeneous는 각각 동질

---

[2]그러나 외적인 요인으로 종점이 주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He walked from 9 in the morning till 5 in the afternoon'에서 동사 walk 자체는 무종성이지만 시간 부사에 의해 종점을 가지는 상황을 나타낸다.

성(homogeneousness)과 이질성(heterogeneousness)이란 용어로 대신할 수 있다. 동질성의 상황은 동일한 부분으로 형성되어 있고 이질성의 상황은 각 부분이 상이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종성, 무종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0a)에서 유종성의 경우 전체와 부분이 다르고 (10b)에서 무종성은 전체와 부분이 동일한 것을 확인하였는데 (10a)는 이질성, (10b)는 동질성의 자질과 일치한다.[3] 실제로 (3)에서 동질성과 무종성, 이질성과 유종성이 같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3)에서 도달의 경우 유종성 혹은 무종성을 판단할 수 없음에도 이질성으로 되어있으나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 엄격히 말하면 도달은 순간의 상황이기 때문에 부분과 전체를 구분할 수 없으나 대개 도달 전까지의 상황을 연상하게 되므로 이것을 감안하면 도달까지의 과정이 이질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있다.

지금까지 Vendler가 분류한 상황 유형과 각 유형의 의미 자질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상(aspect)과 어성(aktionsart)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2.1에서 2.4까지 기술한 여러 의미 자질은 언어 표현에 내재된 객관적 상적 의미(aspectual meanings)를 지시하는데 이를 간단히 어성(aktionsart)이라 하기로 한다. (2)의 4가지 상황 유형은 각각 여러 의미 자질 즉 여러 어성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일종의 복합 어성이다. 각각의 복합 어성은 (3)에서 보는 것처럼 다양한 표현 속에 내재되어 있다. 어성과 확실하게 구별해야 될 것이 상인데 상은 어성과 달리 화자의 관점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개 확실한 문법 형태에 의해 나타낸다.[4] 영어에서 진행형, 완료형, 일부 시제가 여기에 속한다.

3. 진행의 어성

영어에서 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문법 형태인 진행형은 여러 종류의 동사와 만나서 여러 의미를 생산한다. 이때 진행형과 여러 동

[3]그러나 예외적으로 습관의 경우 이질적이면서 무종성의 어성을 갖는다. ((주10)참조)

[4]그러나 반드시 시제, 진행형 같은 문법적 표현만이 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He was here when I arrived'에서 문맥이 진행상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

사가 합하여 만들어 내는 공통적 의미를 진행이라 하면 진행은 (2)의 4가지 상황 유형 중에서 어디에 속할까? 다음을 본다:

(14) Jane was arguing with her father when I came in.

(14)에서 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진행형 'was -ing'이다. 이때 진행형은 화자의 관점을 나타내는 상이다. 다음으로 동사 argue의 어성이다. argue는 동태(-stative), 지속(+durative), 무종성(-telic)의 어성을 갖고 있는 동사이다. 마지막으로 'Jane was arguing with her father.' 전체의 상적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의미를 '진행'이라 하면 진행은 정태, 활동, 달성, 도달의 어성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

(14)의 의미인 진행의 어성을 정태로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예가 Vlach(1981, 1993)이다. 그가 주장하는 진행과 정태의 어성을 동일시하는 이유(i - v)를 보기로 한다[5]:

i) 다음 (15)에서 진행과 정태가 의미의 공통점을 가진다:

(15) a. Max was here when I arrived.
b. Max was running when I arrived.
c. Max ran when I arrived.

(15a)의 정태와 (15b)의 진행은 모두 'I arrived'이전에 이미 발생했지만 (15c)에서 'Max ran'은 이후에 발생한 것이다.

ii) 진행형 'be + v-ing'에서 be는 정태동사이다.

iii) 많은 경우에 진행형은 정태의 계사(copula) 구조로 바꿀 수 있다:

(16) a. John is flying.=John is in flight.
b. They are working.=They are at work.

---

[5]Bertinetto(1994:396-8)에서 인용하였다.

iv) 정태동사처럼 진행형은 진행형을 취하지 않는다:

(17) a. *John is knowing the answer.
b. *Mary is being running.

위와 같은 진행의 어성을 정태로 규정하는 Vlach의 논거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i)에서 (15a)와 (15b)는 모두 지속성(+durative)을 가지고 있다. 또한 (15a)는 정태이지만 문맥상으로 제한된 시간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15b)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a)는 정태이고 (15b)는 동태이다. 정태와 동태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3)에 잘 나타나 있다. 정태는 당연히 정태(+stative)의 어성을 가지고 있고 활동, 달성, 도달을 포함하는 모든 동태는 동태(-stative)의 어성을 가진다. 동태동사는 진행형이 되어도 정태동사가 될 수가 없다. 설사 Vlach의 주장대로 진행형의 동사가 정태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동작주성(+voluntary)에서 정태와 동태가 차이를 보인다. (15a)와 같은 모든 정태는 동작주성이 없지만 (15b)와 같은 진행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18) a. The wind is blowing very hard. (-voluntary)
b. Mary is reading a poem. (+voluntary)

둘째 ii)에서 제기했듯이 정태의 be동사가 진행형을 구성하는 일부이지만 그러나 다음에 오는 분사와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출한다. 진행형의 일부인 be동사의 의미로 진행형 전체의 의미를 예상한다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비슷한 예로 완료형의 조동사 have가 정태동사이지만 간단히 정태를 나타낸다고 말할 수 없다.

셋째 iii)에서 (16)처럼 진행형을 'be + 전치사구'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 수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19) a. John is drawing a picture.
a'. ?John is in the drawing of a picture.

b. Mary is walking in the park.
b'?Mary is in the walking in the park.

넷째 iv)에서 진행형이 진행형을 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진행이 이미 정태이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별도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cf. Ross 1972). 진행이 정태이기 때문에 진행형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행을 정태로 전제한 설명이기 때문에 진행을 정태로 보는 올바른 설명이 될 수가 없다.

지금까지 진행을 정태로 보는 Vlach의 주장의 근거가 적절치 않음을 기술하였다. 실제로 진행과 정태는 유사성보다는 차이점이 많다. Bertinetto(1994:401-4)는 진행과 정태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i - iv):

i) 진행과 정태는 습관상(habitual aspect)을 받아들이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6]

(20) a. Whenever I came, John was working hard.
b. ?Every morning, towards 12 o'clock, John was working very hard.
c. Every morning, towards 12 o'clock, John was hungry.

(20a)에서 습관적 의미가 자연스러운 반면 (20b)에선 어색하다. 대개 (20c)와 같은 정태에선 습관상이 자유롭게 사용된다.

ii) 진행과 정태는 밀도(density)에서 차이가 있다:

(21) a. Yesterday, between 2 and 3 o'clock, John was hungry.
b. Yesterday, between 2 and 3 o'clock, John was working hard.

(21a)에서 정태의 상황은 주어진 시간 동안에 중단이 없으나

[6]여기서 습관상이란 used to, 현재시제 등의 문법형태가 아니라 문장의 문맥에 의해 주어지는 상을 말한다.

(21b)에서 진행의 상황은 중단이 있을 수 있다. 즉 (22)에서 진행과 정태의 상황에서 정태가 진행보다 큰 밀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iii) 영어에서 정태가 진행형을 취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22) a. John is being silly tonight.
b. He is being a fool.

(22)에서 원래 정태인 'be silly'와 'be a fool'이 진행형이 되어서 '어리석게 행동을 한다'라는 동태 의미로 바뀌었다. 이러한 현상은 (17)과는 반대로 진행형이 정태를 동태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진행형의 의미인 진행이 동태임을 증명해주는 사실이다.

iv) 달성의 상황이 진행형이 되었을 때 시간적 점진성을 나타내는 'little by little'이나 'gradually'를 취할 수 있으나 정태는 그렇지 못하다:

(23) a. Little by little, the snow was covering the land.
b. *Little by little, John was hungry.

(23a)에서 달성의 진행은 계속적 변화로 이루어진 동태 상황으로 종점(goal)을 향하고 있으나[7] (23b)의 정태 상황은 시간의 경과와 관계없이 변화 없는 동일한 상황을 유지한다. (23a)에서 진행형은 유종성의 달성을 무종성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태와 공통점을 갖지만 시간적 점진성의 부사와 병존한다는 것은 여전히 동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반면 (23b)의 정태는 처음 부터 무종성이었고 점진성 부사와 병존할 수 없다. (23a)와 (23b)는 모두 무종성을 갖고 있으나 무종성을 갖게된 과정이 다르고 각각 동태와 정태의 상이한 어성 때문에 점진성 부사와 결합했

[7]종점을 향하고 있으나 진행의 의미는 시작과 끝은 생각하지 않고 단지 과정만 포함하고 있으므로 무종성(atelic)의 어성이다. 진행형은 불완전상(imperfective aspect)이지만 진행은 무종성의 어성으로 보아야 한다.

을 때 상이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결국 (23)에서 진행과 정태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이상과 같은 Bertinetto의 설명에 대체로 동의하지만 한가지 추가할 사항이 있다. (22)에서 정태가 진행형을 취할 때 동태로 변하는 현상을 보았는데 대조적으로 같은 상황에서 여전히 정태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24) a. I'm thinking about what you said.
b. I'm feeling more and more pleased with that paper.
c. She is living with her parents.
d. He is looking ill today.
e. Food is costing a lot these days.
f. John is enjoying running.
g. The book is lying over there.
h. The statue is standing in the park.

(24)에서 정태의 진행형은 시간적으로 제한적이거나 유동적인 (contingent) 상황의 정태를 나타내고 있다. (22)와 (24)에서 진행형의 기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게 된다. (22)에서 이미 기술한 것처럼 진행형은 동태화의 기능이 있음을 보았는데 (24)의 예들은 겉으로 보면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24)의 예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의미가 '제한적'이거나 혹은 '유동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정태는 동태에 비해 시간적으로 안정적인 지속 시간을 갖고 있으며 변화가 없다는 속성을 갖고 있다. (24)의 예가 완전한 동태 즉 활동, 달성, 도달 등의 어성은 아니지만 원래의 정태에서 진행형이 되면서 동태의 특징을 일부 갖고 있다. 이것을 달리 해석한다면 (24)의 예는 정태와 동태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 어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결국 (22)와 (24)에서 진행형은 동태화 혹은 동태화 방향으로 상황을 유도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진행은 본질적으로 동태의 어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진행과 정태는 본질적으로 다른 어성을 갖고있음을 기술하였다. 이제 진행의 좀 더 구체적인 어성을 기술할 차례이다.

(22), (23), (24)에서 진행은 동태의 어성이고 특히 (23)에서 유종성의 어성인 달성이 진행형이 되었을 때 무종성(atelic)의 활동(activity)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진행은 당연히 지속성을 갖고 있으며 또한 무종성이므로 동질성을 갖는다. 이러한 진행의 어성을 고려해 볼 때 진행이 속하는 복합 어성은 (3)에서 기술한 활동(activity)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4. 습관의 어성

영어에서 습관(habits)의 어성을 정태로 보는 학자들이 있다. Leech(1971:5, cf34)의 기술이다:

(25) The habitual present represents a series of individual events which as a whole make up a state stretching back into the past and forward into the future.

(25)에 의하면 습관을 나타내는 현재시제가 과거에서 미래로 연속되는 정태를 구성하는 이벤트의 연속을 나타낸다. 다음은 Lyons (1977:716)의 기술이다:

(26) The regular interaction of an event creates a series which may be represented as a unitary duration situations with many of the properties of a state.

(25)와 (26)에서 모두 'series'는 습관과 동의어로 볼 수 있고 (25)에서는 정태와 동일시하고 (26)에서는 정태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내세우는 근거로 우선 비슷한 의미의 정태와 습관을 나타내기 위하여 단순현재(simple present)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다음을 본다:

(27) a. He works at the company. (습관)
b. He is a worker at the company. (정태)

(27a)와 (27b)는 모두 현재시제를 이용하여 각각 습관과 정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27)의 두 문장은 내용상으로 거의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27a)처럼 단순현재가 습관을 나타내는 경우는 다음처럼 무제한 혹은 비교적 긴 시간을 나타날 때가 더 좋은 예이다:

(28) a. He who hesitates is lost.
b. I buy my shirts at Kim's.
c. She walks to work.

그러나 (27a)에서 습관의 어성을 가지는 이유를 단순현재로 돌리고 또한 정태와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음 예를 본다:

(29) a. I open the cage.
b. I give you my word.
c. I deny your charge.

(29a)는 시범(demonstration)을 보일 때 쓸 수 있는 말이고 (29b)와 (29c)는 일종의 수행 동사(performative verbs)이다. (29)에서 단순현재는 정태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

Leech(1971:54)는 'used to' 다음에 정태동사가 오면 과거 정태를, 이벤트 동사(event verbs)[8]가 오면 과거 습관을 나타낸다고 기술하였다:

(30) a. Cigarettes used to cost fifty pence a pack - now they cost three times as much. (과거 정태)
b. That's the man who used to be the organist of St. Paul's. (과거 정태)
c. I used to go for a swim every day. (과거 습관)
d. When I was young, my grandfather used to tell me stories of the Boer War. (과거 습관)

[8]이벤트(event)란 용어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정태(state)를 제외한 모든 어성, 혹은 동태 중에서 활동(activity)을 제외한 어성의 의미로 사용한다.

(30)에서 'used to'를 이용해서 과거 정태와 습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습관의 어성을 정태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과거에 되풀이 될 수 있는 것은 정태뿐 아니라 동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used to'는 다만 과거의 반복을 나타내는 문법적 표현의 하나일 뿐이다.

(28)과 (30)에서는 문법적 형태를 매개로 하는 습관과 정태의 유사성을 보았으나 의미적 관점에서 양자의 유사성을 제기하는 학자가 있다. Brinton(1987:98-99)에 의하면 특정한 성향 혹은 특징이 정태라면 그러한 것들의 발로가 습관적 행동을 형성한다. 그러나 그는 이어서 양자를 분명하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고 기술한다. 다음을 본다:

(31) a. Peter plays well. Peter is a good player.
b. Man kills. Man is a killer/has killer instincts.
c. Beavers build dams. Beavers are dam-builders.

(31)에서 습관과 정태의 의미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7)도 비슷한 예이다.

그러나 습관과 정태의 이러한 의미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구분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 우선 정태와 습관은 동작주성(±voluntary 혹은 ±agency)에서 차이를 보여준다. 정태는 항상 동작주성이 없으나 습관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3), (30) 참조).

Dowty(1979:55-56)는 동작주성을 기준으로 정태와 동태를 구분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을 응용하여 정태와 습관을 구분해 보기로 한다. 우선 (32)에서 동사 force 혹은 persuade 다음에 보어로 의미가 성립하는지 알아본다:

(32) a. *John forces (persuades) Harry to know the answer.
b. John forces (persuades) Harry to build a house.

(32a)에서 'Harry knows the answer'는 정태이므로 force의 보어가 될 수 없고 (32b)에서 'Harry builds a house'는 동태이자 습관을 나타내기 때문에 force의 보어가 될 수 있다.

다음 (33)에서는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는 부사 carefully 혹은 deliberately를 이용한다:

(33) a. *John carefully (deliberately) knows the answer.
b. John carefully (deliberately) builds a house.

(34)에서는 유사분열문(pseudo-cleft sentence)을 이용한다:

(34) a. *What John did was know the answer.
b. What John did was build a house.

(32)-(34)에서 습관은 동태에 속하며 따라서 통사적으로 습관과 정태는 별개의 어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Brinton(1987:200-201)은 다음처럼 정태와 습관을 구분하는 직접적인 증거(i -iii)를 제시한다:

i) 습관은 가산빈도부사(countable frequency adverbs)를 허용하지만 정태는 그렇지 못하다(단 여러 경우에 걸쳐 발생하는 정태는 예외):

(35) a. He often rings the bell three times.
a'. *He loves her three times. cf. He loved her three times(=on three separate occasions).
b. She visits Europe often.
b'. *She often loves him. She often feels depressed(=on many separate occasions).

ii) whenever(혹은 when)절과 병용할 때 정태는 두 시점이 동일하거나 혹은 연속되지만 습관에서는 연속될 뿐이다.

(36) a. Whenever I see her, she is happy (=she becomes happy or is already happy).
b. Whenever I see her, she reads a book (=she begins

to read a book, not she is already reading a book).

iii) 습관은 'right now'와 자연스럽게 병용할 수 없으나 정태는 가능하다:

(37) a. ?They eat dinner right now.
a' ?They take their holidays right now.
b. He is happy right now.
b' She is at work right now.

마지막으로 Zwarts(1989)의 지각동사를 이용하여 습관과 정태를 구분하는 방법 역시 유익한 예가 된다:

(38) a. The witness saw the accused bring a present every day to the victim.
b. *The witness saw the accused hate the victim.

지금까지 습관과 정태의 차이를 여러 각도에서 관찰하였고 양자를 구분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인하였다. 이제 습관의 어성이 정태를 제외한 (2)의 범주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한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다.

3장에서 진행형은 화자의 관점을 나타내는 상의 문법형태이고 진행형이 사용된 문장 전체의 의미는 진행으로 일종의 활동에 속하는 어성으로 결론을 내린바 있다. 마찬가지로 습관과 관련하여 2가지의 개념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영어에서 단순현재, 과거, used to, be in the habit of, be accustomed to 등으로 표현하는 습관상(habitual aspect)이다. 습관상이란 한 상황을 일정 기간에 걸쳐서 반복되는 것으로 보는 상의 범주이다. 다음을 본다:

(39) a. She sings in the shower in the morning. (습관적 활동)
b. He snores every night. (습관적 활동)
c. He writes a poem every day. (습관적 달성)
d. He always finds money. (습관적 도달)

e. *She often loves him.

(39)에서 단순현재를 이용한 습관상은 정태를 제외한 활동, 달성, 도달을 포함하는 동태의 모든 어성을 나타내는 상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보여준다.[9] 그리고 (39)의 각 문장은 습관적 활동, 달성, 도달의 어성 즉 습관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39a)에서 단순현재는 습관상의 문법형태이고 문장 전체는 습관적 활동의 어성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습관상은 상의 일종이고 습관은 어성으로 양자를 상과 어성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습관은 (2)의 4가지 상황(혹은 복합어성) 중에서 어디에 속할까? 습관은 동작주성, 지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흔히 습관과 유사한 어성으로 활동을 들지만 습관이 비동질성인 반면 활동은 동질성이다.[10] 또한 양자 사이에는 통사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활동은 진행형이 되지만 습관은 보통 그렇지 못하다:

(40) a. He took a walk after dinner.
a'. He was taking a walk after dinner.
b. He runs after dinner every day.
b'. ?He is running after dinner every day.

(40a)는 활동이고 (40a')는 대응되는 진행을 나타낸다. 그러나 (40b)는 습관이고 (40b')는 진행형을 취하고 있으나 (40b)와 대응되는 의미가 아닌 다른 종류의 의미를 나타낸다.

Freed(1979:59-60)는 'stopped -ing'에서 활동과 습관의 차이를 지적한다:

(41) a. John stopped running after dinner.
b. John stopped running right now.

(41a)에서 stopped의 보어는 습관이고 'John used to run'의 함의

[9]정태가 습관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존재하고 또한 비동작주성이기 때문이다.

[10]습관은 여러 종류의 개별적인 행위가 모아져서 형성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습관의 전체와 부분은 서로 이질적 성격을 가진다.

(entailment)를 갖는다. (41b)에서 stopped의 보어는 활동이고 'John was running'의 함의를 갖는다.

습관은 달성 혹은 도달과도 단일 어성에서 차이가 있다. 달성은 유종성이지만 습관은 무종성이고 도달은 순간성이나 습관은 지속성이다. 결국 습관은 (1)의 4가지 상황 중 어느 것과도 일치하지 않는 어성임을 알 수 있다.

5. 결론

진행상과 습관상이 만들어 내는 문장의 의미를 각각 진행과 습관이라 할 때 이들의 어성을 Vendler의 상황분류와 비교하여 알아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근거로 진행은 활동의 어성에 속할 수 있고 습관은 별도의 독립적인 어성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보았다. 따라서 영어에서 보다 정밀한 유형의 상황 분류를 위해서 Vendler의 4가지 상황 정태, 활동, 달성, 도달에 추가하여 습관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상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Bertinetto, P. M. 1994. Statives, progressives, and habituals: analogies and differences. *Linguistics* 32, 391-423.

Brinton, L. J. 1987. The aspectual nature of states and habits. *Folia Linguistica* 21, 195-214. The Hague: Mouton.

Dowty, D. R. 1979. *Word Meaning and Montague Grammar: The Semantics of Verbs and Times in Generative Semantics and in Montague's PTQ.* Dordrecht: Reidel.

Freed, A. F. 1979. *The Semantics of English Aspectual Complementation.* Dordrecht: Reidel.

Garey, H. 1957. Verbal aspect in French. *Language* 3, 91-110.

Leech, G. N. 1971. *Meaning and the English Verb.* London: Longman.

Lyons, J. 1977. *Semantics.* Volume 2.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Ross, J. R. 1972. Double-ing. *Linguistic Inquiry* 3, 3-61

Vendler, Z. 1967. *Linguistics in Philosophy.* Ithaca: Cornell Univ. Press.

Vlach, F. 1981. The semantics of the progressive. *Tedeschi & Zanen,* 271-292.

Zwarts, J. 1989. Statives and habituals. In P. Coopman, B. Schouten, and W. Zonneveld, eds., *OTS Yearbook* 1989, 101-111. Dordrecht:

Rijksuniversiteit Utrecht.

박노민
강원도 강릉시 지변동123
강릉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우편번호: 210-702
전화: 033)640-2122
E-mail: nmpark@knusun.kangnung.ac.kr

접수일자: 2000. 12. 2.
게재결정: 2001. 1. 15.